

한눈에 경희를 읽는 법

경희기록관 남기원

경희의유산⑩
『서울캠퍼스 본관 2』

77년 역사의 경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경희를 짧은 시간 내에 충실하게 이해시켜야 한다면 본관만 한 곳이 없다. 본관은 경희라는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경희를 제대로 알기 위한 출발점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해하면 경희가 걸어온 학문과 평화의 역사, 캠퍼스의 상징과 의미 등이 술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관에는 '문화세계의 창조' 개념을 이미지로 표현한 부조상이 있다. 물론 '문화세계의 창조'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책 한 권을 할애해 설명한 간단치 않은 개념이지만, 그 핵심은 본관 페디먼트의

부조상 이미지를 통해 충분히 전달된다.

본관에는 대학의 본령에 대한 언명도 있다. 바로 본관 중앙 출입구 상단 돌에 새겨진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문구다. 대학은 본래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곳으로서 존재해 왔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대학의 중심으로 새김으로써 경희가 순수한 학술의 전당임을 밝히고 있다.

경희가 추구하는 인재상 역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관 분수대는 독서하고, 사색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의 세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여인은 아테네로부터 전승되어 온 교육이념인 지(知), 덕(德), 체(體)를 각각 상징하는데, 경희의 교육목표가 능력 있는 지식인 양성을 넘어 지성, 인격, 육체가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희의 상징 동물인 사자상과 교화(校花) 목련꽃도 본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본관은 그야말로 경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이다. 그런데, 본관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조화'의 정신이다.

본관 부조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중앙을 향해 마주 보는데, 이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본관 건물 자체는 서양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하고 있지만, 요소요소에는 동양적인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

분수대로 내려가는 계단 중앙 담도(踏道)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본관 출입구 문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페디먼트의 양 모서리돌에는 무궁화가 있는 등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리 추구의 자유를 선언하는 동시에 지구를 떠받치는 분수대를 배치함으로써 학술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한다. 거대하고 웅장한 본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건물이 주변 자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70년 전, 경희는 주변의 우려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본관 건설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당시 경희의



① 본관전경 ② 본관 출입구

시선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본관의 역사적, 미학적,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울 일부 건물 무석면 전환... 국제캠은 잔류 11곳 철거 작업 이어가지만 전면 제거 시점은 미지수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우리신문 지난 2022년 교내 석면 관리 현황을 점검해 본 바 있다. (관련기사: 석면 사용 전면금지 7년...우리학교 현황은?/대학주보 1687/2022.06.08.)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학교의 석면 관리 실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캠퍼스별 현황을 알아봤다.

이달 초 정경대학관에 '석면자재 철거 공사로 인한 5층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공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현재 우리학교 일부 석면건축물은 사라졌지만 모든 건물을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2년 보도 이후 4년간 서울캠은 지속적인 석면 보수를 거쳤다. 당시 서울캠에 석면이 남아있던 건

물은 22곳(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관, 국제교육원, 한의대학관, 학생회관, 정경대학관, 제1의학관, 네오르네상스관, 이과대학서관, 중앙도서관, 이과대학동관, 문과대학관, 교수회관, 대학본부, 미술대학관, 세화원, 제2의학관, 청운관, 푸른솔문화관, 호텔관광대학별관)이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따르면 현재 석면 제거 공사를 통해 ▲미술대학관 ▲세화원 ▲제2의학관 ▲청운관 ▲푸른솔문화관 ▲호텔관광대학별관 6곳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뀌었다. 위해성 등급 역시 하향 조정됐다.

위해성 등급은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해 낮음, 중간, 높음 3등급으로 구분된다. '낮음'은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중간'은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높음'은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당시 서울캠 건물 중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우리학교 일부 석면건축물은 사라졌지만 모든 건물을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경대는 이달 공사를 진행했다. (사진=서라수 기자)

공간은 ▲국제교육원 207호, 309호 ▲호텔관광대학 신관 201호, 301호 ▲구한대의학관 B104호, B208호 ▲제1의학관 337호, 616호, 617호, 802호 ▲네오르네상스관 102호, 304호, 405호, 503호 ▲중앙도서관 407호 ▲미술대학관 300호, 504호 ▲본관 119호였으나 현재는 모두 낮음 등급이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실시해 등급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서울캠 내

석면 잔류 건물은 16곳(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관, 국제교육원, 한의대학관, 학생회관, 정경대학관, 제1의학관, 네오르네상스관, 이과대학서관, 중앙도서관, 이과대학동관, 문과대학관, 교수회관, 대학본부)이다.

국제캠 역시 지속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당시 국제캠에 남아있던 석면건축물은 11곳(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 도예관, 생명과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지하주차장, 공학대학관, 우정원, 학생회관)이었다. 국제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따르면 9곳(공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국제대학관, 멀티미디어교육관, 생명과학대학관, 우정원, 전자정보대학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2022년 이후 4년간 진행됐다. 다만 완전히 제거해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된 건물은 없다.

현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국제캠 내 석면 잔류 건물은

11곳(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 도예관, 생명과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지하주차장, 공학대학관, 우정원, 학생회관)이다.

국제캠은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1건, 2025년 2건으로 꾸준히 석면철거 공사 및 감리를 진행해 왔다. 국제캠 관리팀은 "교내 환경개선 공사와 더불어 매년 석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역시 지속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서울캠 관리팀은 "공사가 예정돼 있고 해당 호실이 석면으로 이뤄졌다면 석면철거를 1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면 철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은 알 수 없다. 서울캠 관리팀은 "교내에 석면 관련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철거 예정"이라면서도 "건물별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공사할 예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